



<b>코스피</b> 2411.41 (+36.35)	<b>코스닥</b> 859.21 (+14.21)
<b>금리</b> (미국 3년) 2.32 (+0.01)	<b>환율</b> (원/달러) 1076.10 (-5.90) (6일)



**[뉴스]**  
스튜어드십 코드로  
공공성 강화 나선  
국민연금  
03



대북 특사단, 김정은 내외 만찬

북한을 방문 중인 정의용 수석 대북특사 등 특사단이 지난 5일 평양에서 열린 만찬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등과 환담하고 있다. 만찬에는 김 위원장 부인 리설주,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등이 배석했다. /연합뉴스

### 새도보팅제 폐지 후 첫 주총시즌

(의결권 대리행사)

# “의결정족수 못 채워 주총 무산될라” 속 끓는 상장사

## 2018 新 주총시대

소액주주 주식보유기간 짧아  
실제 주총 참여율 1.9% 불과  
주총 무산·부결 대거발생 우려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상장사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새도보팅제(shadow voting·의결권 대리행사 제도)가 완전 폐지된 후 처음 열리는 주총이기 때문이다. 각사는 주요 안건에 대한 의결정족수를 채울 수 있을지 장담하지 못하고 있다.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주총 자체가 열리지 못하거나 안건이 부결되는 상장사가 대거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새도보팅제는 주주가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아도 투표한 것으로 간주, 다른 주주들의 투표 비율



1973년 12월 18일 상장사 100개사 달성을 기념해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창립 총회가 열렸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을 의안 결의에 그대로 적용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동일한 지분을 소유한 주주 100명 중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가 10명일 경우 해당 안건에 대해 7명이 찬성하고 3명이 반대하면 출석하지 않은 나머지 90명의 주주에 대해서도 똑같은 비율로 표결에 참여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과거 주주들은 기업 경영보다

배당에 대한 관심이 컸다. 때문에 주주들은 회사 주총에 무관심했고, 기업들은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주총이 무산되기 일쑤였다. 이에 정부는 의결권 대리행사 제도에 대해 7명이 찬성하고 3명이 반대하면 출석하지 않은 나머지 90명의 주주에 대해서도 똑같은 비율로 표결에 참여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 2014년부터 새도보팅이 폐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새도보팅이 최대 주주 입맛에 맞는 결정을 위해 악용되면서 주주 전체 의사를 왜곡한다는 지

적과 함께 기업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해선 주주들의 입김이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렸기 때문이다. 이에 3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작년 말 완전 폐지됐다.

◆ ‘3%룰’ 지켜질 수 있을까?  
올해 새도보팅을 이용할 수 없는 첫 주총 시즌이 다가오자 주총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 법무부가 서울 대산학협력단에 용역한 ‘새도보팅

실태 분석 및 폐지에 따른 대응방안 연구’를 보면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새도보팅을 통해 의결된 주총 안건은 6268개로 나타났다. 이중 73.2%(보통결의 기준)는 새도보팅이 없었다면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했을 것으로 분석됐다.

상법상 주총에서 안건이 통과되기 위해선 발행주식 총 수의 25% 이상 찬성과 출석주식 수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소액주주 비율이 높은 상장사의 경우는 주주들이 단기 투자를 위해 접근했기 때문에 주총 자체에 관심이 없는 경우가 태반이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 따르면 소액주주들의 평균 주식보유기간이 5개월(코스피 4.9개월, 코스닥 2.2개월)도 채 안된다. 주총에 참여할 가능성이 낮다는 의미다. 또 실제 소액주주의 주총 참여율은 주

식수 대비 평균 1.88%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 큰 문제는 감사를 선임해야 하는 상장사다. 이사 선임, 임원 보수 승인 등과 달리 감사 선임에는 ‘3%룰’이 적용된다. 3%룰은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감사선임 안건에 대해 3% 이내의 의결권밖에 행사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주주의 독단적인 감사선임을 견제하기 위해서다.

가령 최대주주가 30%의 지분을 갖고 있더라도 감사 선임에는 3% 지분만 인정한다. 정족수(25% 이상)를 채우기 위해서는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을 제외한 22% 주주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러한 조건을 채우지 못해 감사를 선임하지 못하면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도 있다.

(3면에 계속)

/손영지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 삼성전자, 인도 스마트폰 시장 1위 수성 자신감

# 고동진 “유통망, 브랜드 등 앞서… 걱정 안해도 돼”

(삼성전자 IM부분 사장)

“인도 시장은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고동진 삼성전자 무선사업부(IM) 사장이 세계 3대 스마트폰 시장인 인도 시장 수성에 나선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4분기 인도에서 스마트폰 시장점유율 1위를 샤오미에 내줬다. 이 때문에 IM 사업부 위기설까지 대두됐지만 고동진 사장은 인도 시장에 대한 1위 수성을 넘어 경쟁사를 압도하는 성과를 내겠다고 자신했다.

20여년 이상 인도에서 쌓아온 탄탄한 브랜드 이미지와 현지 거대선과의 관계,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2018’에서 공개한 갤럭시 S9에 대한 자신감 등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6일 시장조사기관커운터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4분기 인도 시장에서 점유율 23%를 기록하며 중국 샤오미(25%)에 1위 자리를 내줬다.

2016년 4분기 9%에 불과했던

샤오미의 점유율은 1년 만에 3배 가까이 상승한 반면, 삼성전자는 2016년 4분기 24%에서 지난해 4분기 23%로 점유율이 줄었다.

수치는 크지 않지만 삼성전자가 인도 스마트폰 시장에서 1위를 빼앗긴 것은 2011년 이후 처음이다.

특히 인도는 지난해 미국을 제치고, 중국에 이어 연간 1억 대 이상 스마트폰이 팔리는 세계 두 번째 시장으로 커진 상황에서 글로벌 스마트폰 1위의 삼성전자의 입

지가 흔들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아니냐는 분석이 이어졌다.

고 사장은 MWC 2018에서 인도 시장에 대한 이 같은 시선에 대해 “삼성전자가 (브랜드) 가치나 판매량에서 압도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고 자신했다.

이어 “인도시장은 삼성전자가 유통전략이나 거대선과의 관계 등 측면에서 오랜 시간 공을 들여왔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해도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고동진 삼성전자 IM사업부부분 사장

/삼성전자

고 시장의 이 같은 자신감은 삼성전자가 1995년 인도에 진출한 이후 단순히 가전제품을 판매하는 기업이 아니라 인도 사회를 깊이 이해하고, 발전에 기여하는 기업으

로 이미지를 굳혔기 때문이다. 이는 2년 연속 인도에서 가장 신뢰받는 IT 브랜드로 선정된 것에서도 증명된다.

(4면에 계속)

/정은미 기자 21cindium@